

92년 OECD 과학 기술 각료 회의 커뮤니케 1)

황 혜 란

(동향 분석 연구실)

지난 3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프랑스 연구 기술성(Research and Technology Dept.) Hubert Curien장관 주재로 OECD과학 기술 각료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주제는 "1990년대의 과학 기술 정책-국가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결합-"으로서, 이 주제는 경제 부문과 과학 기술 시스템의 국제화 경향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국 장관들은 첫째, 국제화의 결과로 국제 과학 기술 협력이 강화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둘째, 이러한 국제화의 과정은 과학 기술이 OECD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 특히 개도국의 경우 기술변화를 흡수 운용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접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후, 셋째, 국제화 과정은 OECD활동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장관들은 1) big science에서의 협력 2) 중앙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3) 혁신 체제와 국제적 상호 의존 등의 세 가지 주요 안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각 안건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big science에서의 협력

거대 설비 프로젝트(particle accelerator 등)와 대규모 국제 공동 프로그램(human genome research 등)들은 점차 거대화됨에 따라 한 국가의 힘만으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충당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대규모 국제 공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구나 多部門間的 연합과 더불어 국제 수준에서의 연구 수행과 기획 조정,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창출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획과 경영, 그리고 이들 국제 프로그램들을 국가 수준의 기획 영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현재 다각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창출된 지식의 확산과 연구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번 각료 회의에서는, 이들 프로그램들의 기획, 개발, 재정에 관한 초기 의견 형성 단계부터 공개된 토의와 정보의 교환을 통한 통일적 접근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과 OECD framework가 이러한 정보의 교환과 논의를 위한 유용한 장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 논의들은 거대 프로그램들이 거대 과학과 '일반'과학 간의 자원 배분상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국제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들에의 참여와 국가 내부 프로그램들간의 균형과 접합 문제, 각기 다른 과학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참여 국가들 간의 비용과 이익의 분담 문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과의 연계 문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 기술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앙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장관들은 중앙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환영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과학 기술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OECD 국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①과학 기술자의 훈련, ②국가 과학 기술 시스템의 강화, ③기술의 이전, ④국방 산업의 전환 등의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연구 네트워크 수립과 과학 기술자의 쌍방 이동이 요구되고 쌍무적인 혹은 다자 간의 협력 추진에 대한 경험과 정보의 체계적인 교환이 이들 지역과의 협력 증진에 도움을 주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OECD가 이들 위한 적절한 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3. 혁신 체제와 국제적 상호 이전

한 국가의 혁신 체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은 효율적인 혁신 과정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각각의 요소들은 점차로 국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관들은 혁신 체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실제로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 수준에서는 정부 내에서의, 그리고 정부와 다른 경제 주체들 간의 협동과 협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반 기술(generic technology)의 이익을 포착하고 기술을 확산시키며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정책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과학 기술 정책과 무역·경제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 대학이나 연구 기관들과 같은 강력하고 창조적인 과학 기술 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국제 수준에서는 과학 기술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국 과학 기술 자원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와 명료성(transparency)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 간 정책의 차이에 비추어 공통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게임의 법칙'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특히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그리고 환경 개선에 기반이 되는 기술(generic technology)의 영역인 new biotechnology의 진보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동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울러 지적되었다.

주석1) 이상은 최근 입수된 OECD각료 회의의 communique를 요약한 것이며, 부속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分析과 함께 다시 掲載할 계획임.

